

# 버스 정비비용은 '찢끔' 회사 대표 연봉은 '퐁퐁'

### ■ 광주 시내버스 일부 업체 도 넘은 '도덕 해이'

### 매년 수백억 원 지원 받고도 시민안전 '뒷전'

### 8곳 대표 연봉 6500만원... "준공영제 전면 폐지"

광주지역 일부 시내버스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과 방만 경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정비 비용에 대해서는 인색한 반면, 업체 대표 이사들의 연봉은 적자 경영 속에도 연봉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고액 연봉을 챙겨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시민 안전을 등관시하고 시민 혈세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이들의 무책임한 행태에 비춰볼 때 준공영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백억 원 혈세 받고도 안전은 '뒷전' =광주동부경찰은 17일 수십 만 원의 정비비용을 아끼려고 시내버스의 안전장치를 제거한 뒤 운행하도록 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동화운수 대표이사 이모(40)씨와 정비탑장 우모(36)씨 등 10명을 불감증 조사 중이다. 할대는 차량 바퀴의 좌·우 충격완화 장치를 잇는 부품으로 차량이 회전할 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다.

이씨 등 대표 이사들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내버스의 충격완화 장치인 할대를 교체하는 대신, 아예 제거한 채 시내버스를 운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씨 등은 할대 교체비용이 30만~50만 원씩 든다는 이유로 평균 3~6개월 마다 교체해야 하는 할대를 교체하지 않고 제거한 혐의다.

광주지역 10개 시내버스 업체 중 5곳(81대)이 이같은 '무개념 운행'을 해왔다.

업체별로는 ▲동화운수 24대(전체 운행 66대) ▲을로버스 21대(173대) ▲현대



차체가 기울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바퀴를 잇는 충격 완화장치인 할대.

교통 16대(177대) ▲세영운수 13대(72대) ▲대원버스 7대(63대) 등이다.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비 비용을 아끼겠다고 시민 목숨을 담보로 못된 짓을 했다. 경찰도 적발한 뒤 한 달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민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불안한 버스를 타고 다닌 셈이다.

○광주시민은 불(?)=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부 버스업체 대표이사들이 자신의 연봉만큼은 꼬박꼬박 올려 챙겨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8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6512만 원으로 지난 2012년 5975만 원

보다 537만 원 올랐다.

평균 연봉은 지난 2006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적게는 3.29%, 많게는 15.76%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대표가 있는가 하면 한 해에만 76.36%(5500만 원 → 9700만 원)의 연봉을 올려 받은 대표이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2007년 196억원에서 ▲2008년 293억원 ▲2009년 288억원 ▲2010년 352억원 ▲2011년 301억 원 ▲2012년 350억 원 ▲지난해 395억원 등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또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만족도는 지난해 82.7점으로 전년도 96.8점에 비해 오히려 14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객수도 준공영제 시행 4년째인 2010년 1억 6141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기준 승객 수는 1억5391만6000명.

경영정상화보다 '갯감 빼먹기'에만 열을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10 해질 17:25  
달출 02:44 달짐 14:51

### 두툼한 옷차림 필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2/13	보성	맑음	1/12
목포	맑음	5/12	순천	맑음	3/14
여수	맑음	5/13	영광	맑음	3/12
나주	맑음	0/13	진도	맑음	4/12
완도	맑음	5/13	전주	맑음	1/12
구례	맑음	-1/12	군산	맑음	0/11
강진	맑음	2/13	남원	맑음	-2/12
해남	맑음	2/13	홍산도	맑음	9/12
장성	맑음	0/12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남부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서부	북서~북	1.0~2.0	북서~북	0.5~1.5

### ◇생활지수

식중독	34
운동	70
빨래	90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03	04:19
23:12	16:44	
여수	12:22	06:30
	00:00	18:23

### ◇주간 날씨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24(월)	25(화)
☀	☀	☀	☀	☀	☁	☁
1/14	3/16	4/16	6/16	3/15	6/13	6/11



제설차 점검  
광주시 복구청 건설과 도로팀 직원들이 17일 광주시 복구 용봉동 제설차재보관소에서 제설차 살포기 정상작동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 항소

세월호 승무원 15명 전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준석(68) 선장을 비롯해 2등 항해사 김모(46)씨, 3등 항해사 박모(여·25)씨 등 승무원들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5명 전원이 항소심 판결을 받게 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로, 항소심 공소 유지를 위해 1심 재판에 참여했던 박재익 강력부장 등 검사 5명을 그대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광주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나 재판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된다.

검찰은 항소장 제출 과정에서 "(1심 재판의)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양형도 동의하지 않는다" "항소해 판단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례가 없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항소심뿐 아니라 대법원까지 검찰과 피고인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지법, 인화학교 관련 '성추행교사 퇴출' 시위 불허

### 해당 교사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

(구)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 등이 '성추행 교사 퇴출'을 촉구하는 시위 등을 벌인 것과 관련, 해당 교사로 지목된 A씨가 법원에 낸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A씨가 광주인화학교 총동문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인격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인용(認容)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인화학교 총동문회 등은 ▲광주시교육청 ▲광주선명학교 ▲광주선광학교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서 '특수교육현장에 있는 도가니 교사를 퇴출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거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피켓·현수막을 들고 집회·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또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A씨에게 1회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총동문회 등의 행위는 A씨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의 적시를 포함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의 일부인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점'을 들어 A씨 주장(2km)과 달리

500m 이내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또 총동문회측의 '1인 시위 등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만큼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소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해당 단체 등이 근거 없는 사실을 토대로 자신을 성추행 교사로 몰아붙여 명예와 인격이 매도당했다며 법원에 근무지 등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군 복무중 치료시기 놓쳐 실명했다면 국가유공자"

### 광주고법, 20대 원고 승소 판결

군 복무 중 발병되지 않았더라도 복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쳐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됐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 1부(부장판사 박병철)는 양모(26)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재판부는 "해당 질병은 양씨가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때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지 못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 2008년 3월 육군 기동중대에 배치돼 같은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고 이듬해 4월 유격훈련 기간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진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 군 병원을 찾았다가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09년 12월 만기 전역 이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고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비해당 결정을 받아 소송을 냈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당뇨환자를 위한 매출 3% 기부금

**전남대학교병원**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5억원 가입

**H 현대해상화재보험**

당뇨병 환자도 부담없이 드실수 있는

# 천연설탕 토디팜 재거리

순수함을 간직한 청정지역 미안마의 자연산물

**천연설탕 자연산 100%**

**런칭 기념 2+1**

- 시럽 프리미엄(750g) 28,000원
- 시럽 일반(750g) 22,000원
- 가루(1kg) 38,000원
- 고체(1kg) 36,000원
- 강황(500g) 15,000원

각종류별도/시럽/가루/고체 •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광주은행 040-121-698715 네이처코미

**약으로 쓰이는 아자수액을 끓여 만든 오리지날 천연설탕 미안마 재거리**

- 낮은 당 수치로 당뇨병 및 고혈압 예방
- 신경계와 심장에 좋음 / 피를 맑게 함
- 낮은 열량 / 다이어트 효과
- 기력회복 / 정력에 도움
- 소화불량 / 변비예방
- 폴리페놀 성분 / 아카시아 벌꿀의 20배 /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7배 / 비타민C,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

단맛을 내는 "모든음식"에 사용하세요

식약청 검역번호 41762-14-002447U

건강 100세를 기원하는 천연식품기업

**네이처코미**

**주문상담 1899-8752**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46번길 7-1 금양빌딩 603호 네이처코미